

안녕하십니까?

조국산천이 새롭게 소생하는 봄날, 선생님의 건강을 기원하며 통일민주당 동구지구에서 신바람나는 한판 썩플이를 위해 당당히 나선 노무현, 사랑과 단결의 선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되돌아 보면 지난 한 해는 조국의 민주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한 기나긴 투쟁속에서 하나의 크나 큰 획을 그은 해였습니다. 새벽 벽두부터 터지기 시작한 애국학생 고 박종철군의 고문살인에서부터 고 이한열군, 부산의 애국시민 고 이태춘씨, 대우조선 노동자 고 이석규씨의 죽음이 우리의 양심을 박동질치게 했고 전두환·노태우 군사독재정권의 4.13호헌조치등 강압적 폭력정치는 우리의 의로운 분노를 내뽐게 했습니다. 그 결과 조국의 고난과 민중의 고통을 결코 저버리지 못하는 우리 양심적 지식인과 애국의 충정에 불타는 청년학생·도시서민 등이 땅의 애국민주세력은 지난 6월 15일만에 걸친 위대한 반독재국민대항쟁을 전개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도 청년학생·시민과 함께 밤늦도록 서면과 남포동거리를 오가며 애국의 벽찬 가슴으로 '독재타도'를 외치던 그 감격의 6월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우기 6월 18일의 밤은 정말 저에게는 감격스런 날이었습니다. 수십만에 달하는 부산시민이 한데엉켜 목이 터져라 노래를 부르며 이 땅에 참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람사는 세상을 갈망하는 모습, 그 얼굴들, 정의의 편에 선 양심있는 사람이라면 그 감격의 모습을 보며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악독한 독재정권은 6.29노태우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등 제반민주화 조치를 실시하는 양 선심을 쓰다가 급기야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온갖 공작정치와 컴퓨터까지 동원 부정조작선거로 군사독재를 연장시켰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물론 분열된 야당에게도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와 뜻보다 당리당략에 의해 눈이 먼 보수야당은 지난 대통령선거의 패배에 대한 국민적 지탄을 감내해야 하며 나아가 이제는 전통적인 야당의 모습을 벗고 새롭게 혁신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운동본부 상임위원장으로서는 야당의 단결을 호소하며 노태우의 군사독재 연장 음모를 저지하기 위해 힘을 썼지만 국민과 함께 가슴아픈 패배를 겪어야 했습니다. 전두환에서 노태우로 바뀌었지 어느 것 하나 달라진게 없는 이 땅의 정치현실, 또 언제 우리의 애국학생이 고문실에서 죽어갈지, 또 언제 가난한 이웃의 아늑한 가정이 무허가 주택이라고 헐릴지, 또 누가 권력의 비호아래 상상도 하기 힘든 부정 추재를 해낼지 모를 형편입니다. 이 모든 불안한 정치분위기는 현 정치권력이 국민의 뜻과 요구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총과 칼, 재벌에 의해 영위되는 강권정치에 의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의 한 원인이 되었던 야당의 분열과 구태의연한 정치적 자세를 혁신시키기 위해 국민과 함께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는 마치 환자에게 약을 지어줄 때 병의 악화정도에 따라 약의 양과 질을 결정하듯이, 이제는 민정당 독재라는 부패한 정권의 치유책은 국민의 애국적 단결과 이 단결된 힘에 기초한 야당의 새로운 개조뿐이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애국민주인사가 의회로 나가 야당의 새로운 단결과 개조를 이루어야 합니다.

저는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고 제신 애국민주인사들과 같이 하기에는 참으로 모자라는 사람이지만 독재냐, 민주화냐, 애국이나, 매국이나 하는 절대절명의 기로에 선 조국의 운명을 앞에하고 양심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히 정의의 편에 서서 국민의 고통을 함께 하고자 이렇게 나섰습니다.

제가 감히 이렇게 선생님께 글을 올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선생님께서 장기집권 음모를 노골화시키고 있는 민정당을 패퇴시키는 장엄한 투쟁에 그것도 제 5공화국의 주도세력중의 하나인 허대령을 이 땅에 발도 못 붙이게 앞장서 주심사하는 것입니다.

부정추재의 온상지 새마을 본부 육성법을 제정하고 전두환·노태우와 함께 12.12군사쿠데타를 일으켜 군사독재정권을 만드는데 앞장 선 허삼수 대령과 맞붙는 한판 썩플이를 국민의 승리로, 지난해 6월의 감격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십시오.

저 혼자 힘으로는 미약합니다. 선생님과 뽕뽕뽕쳐 허대령을 처단하고자 합니다. 학정의 고난과 억눌림의 고통에 못이겨 불끈 일어서서 온몸 폭풍으로 몰아치는 신바람나는 한판 썩플이를 노무현과 함께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의 건강과 가정의 평화를 기원하며 이만 줄일까 합니다.

1988. 4. 13.

통일민주당 동구지구당 국회의원 후보

노무현 올림